

[기획] >> 3면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기획] >> 5면
우리학교 정보격차 문제

[학술] >> 9면
상속세 논란

[인물] >> 12면
박성웅 배우를 만나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한 해를 돌아보다



이번 해 양캠퍼스 총학생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양캠 총학은 기존 공약 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부 변경됐다. 이 시점에서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공약과 이행 정도에 대해 살펴보자.

▶4면에서 계속

글·사진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에 선물 전해

이번 달 10일부터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 등록 신입생에게 학교 마크가 새겨진 목도리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배부했다. 양 캠퍼스 신입생 약 3,300명이 그 대상이다. 행사 진행 비용은 우리학교 예산과 졸업생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미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팀장(이하 김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신입생을 위로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해 신입생은 두 학기를 비대면으로 수업하며 △교수△동기△선배와 원활히 교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며 신입생에게 공감과 응원의 말을 건넸다. 또한 코로나19가 종



▲20학년에 배부한 목도리와 블루투스 이어폰

식돼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이 다시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예준(경영·경영20)씨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한 참에 학교에서 받아 매우 만족한다”며 새내기들의 아쉬운 마음을 이해해준 뜻깊은 행사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의 한 신입생은 “행사의 취지는 좋으나 준비 물품이 만족스럽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대상자는 이번 학기를 등록한 20학번 재학생으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자신이 속한 학과·학부 사무실에서 신원 확인 후 목도리와 블루투스 이어폰 중 하나의 품목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이문일공칠 문화상점, 서울캠퍼스 도서관에 2호점 개장해

이번 달 20일, 이문일공칠 문화상점(이하 이문일공칠) 2호점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1층에 개장한다. 이문일공칠 입점으로 학생의 전반적인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도서관 1층에 위치한 만큼 학생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재학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갈승현 우리학교 캠퍼스타운산업 홍보담당관은 “2호점만의 디지털트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며 큰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이번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문일공칠 2호점 이름 공모전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에 재학생 참여를 당부했다. 개관 당일엔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매해 학교 구성원 다수의 방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문일공칠 2호점 입점을 알리는 입간판

한편 우리학교 캠퍼스타운산업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이문일공칠은 우리학교 도로명 주소인 '이문로 107'에서 창안된 이름이다. 주로 대학전공 저서 판매와 다양한 문화사업을 담당한다. 대표 문화사업으로 우리학교 재학생 대상 독립출판 사업이 있다. 학생 중출판을 원

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해당 사업은 재학생의 독서 관심 증진 및 활성화를 유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문화 활성화 도모△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이 이문일공칠의 궁극적 목표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우리학교 도서관 다독상 및 정독상 시상해

이번 달 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에서 △다독상△정독상△토익·토플 성적 우수자 시상식이 열렸다. 다독상은 이번 해 가장 많은 책을 대여한 학생에게 수여됐으며, 정독상 수상자는 교수 지정 책에 대해 우수한 서평을 쓴 학생이 선정됐다. 공인 영어 시험인 토익·토플 성적 우수자는 모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재학생 순으로 수상했다. 다독상과 공인 영어 성적 우수자 부문에선 우수상과 장려상 시상이 이뤄졌고 정독상의 경우 최우수상을 추가했다.

이성하 설캠 도서관장 겸 우리학교 ELLT학과 교수는 수상 축하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저조한 독서 시간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독서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의 총



▲정독상 대상자 기념 촬영

체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언어의 가치는 불변하므로 독서에 더욱더 정진하길 바란다”고 축하와 당부 인사를 건넸다. 다독상 수상자인 한유진



▲성적우수 대상자 기념 촬영

(사범대·한국어교육 19) 씨는 취미인 독서로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단 소회를 밝혔다. 다독의 원동력으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 도서관을 자주 가게 돼,

자연스레 책을 많이 읽었다”며 “과 특성상 언어를 많이 접하니 해외 작품에도 손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도서관은 설캠 도서관보다 앞서 해당 시상식을 각각 진행했다. 설캠과 달리 다독상과 정독상 시상식을 분리했다. 지난달 8일, 정독상 시상식은 글캠 도서관장실에서 열렸다. 이어 29일엔 다독상 수상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장과 부상은 개별 전달하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우리학교 터키문화원, 한국천문연구원과 MOU 체결해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우리학교 유누스 엠레 터키문화원은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센터와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과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다양한 맞춤형 연구지원△천문 분야 공동연구 진행△천문연구 교류△학자 간 학술 교류 등을 약속했다. 오종진 우리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이하 오 교수)는 협약식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양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와 터키 천문 연구자 간 공동 프

로젝트를 기획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협약식 이후 ‘조선과 이슬람 과학기술 교류 연구’를 주제로 국제 미니워크숍이 진행됐다. 미니워크숍에선 오 교수를 비롯해 △로브산 이브라히모프 우리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교수△이지은 우리학교 중앙아시



▲MOU 체결을 축하하는 기념 사진

아학과 교수△하나피 시마 우리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교수 등이 우리나라와 이슬람 지역 간 천문연구 실적과 역사적 교류를 다룬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센터에선 △김상혁 천문학 박사△

학과 교수 등이 조선시대 이슬람과의 천문학 교류에 대해 발표했다.

유누스 엠레 터키문화원은 지난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터키문화관광부 산하 터키문화원이다. 현재 48개국에 58개 지부를 두고 터키 문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병희 천문학 박사△이은희 연세대학교 천문기상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신설해

이번 달 4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이 일부 개정·신설됐다. 해당 회의에선 △온라인 선거운동 과정△투표 방법에 대한 조항△업무 및 권한에 관한 조항이 개정됐다. 또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후보자 추천’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제62조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과정에 관한 조항을 보다 자세히 개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보고 받은 온라인 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 사용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행위의 주체는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선거운동본부원이다. 이는 제62조 제6항에 따라 온라인 의사 표현 행위 주체를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로 명시해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제72조 투표 방법 조항도 개정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도 정상적인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집행 가능해졌다.

또한 제8조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조항 변경을 통해 유

권자 권리 보장 차원의 중선위 의무를 명시했다. 이는 선거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확장됨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실무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제48조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은 신설됐다. 이는 답변의 결집이 유권자의 기본 권리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질 선거를 대비해 제37조 온라인 공간에서의 후보자 추천 조항을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상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회칙적 근거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신설된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온라인 선거를 대비해 마련된 회칙으로 앞으로의 학생자치활동 영역이 온라인으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양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프로그램 진행해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이하 설캠 상담센터)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생생하게 하루 시작하기’를 운영했다. 이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하는 프로그램이다. 24일엔 온라인 그림 감상 수업 ‘그림으로 내 마음을 충전합니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극복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감상해 마음을 충전한단 취지다. 또한 이번 학기 설캠 상담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 열린 상담실’도 운영한다. 익명 고민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주축이다. 정진영 설캠 상담센터 책임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치고 무기력할 학생을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난 잘하는 게 뭘까?—나의 강점 찾기’를 진행했다. 이는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 좀 더 당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며 학생회관 내 집단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달 6일부터 20일까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운영된다. 10일부터 24일까지 진로 선택에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나의 진로 찾기’가 실시되고 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서울캠퍼스 대동제, 퀴쿠아트리아 플러스 마무리해

이번 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새벽으로부터’는 온라인 대동제 ‘퀴쿠아트리아 플러스(이하 퀴쿠플)’를 개최했다. 퀴쿠플은 재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소동형 축제로 △릴레이송 프로젝트 ‘당연한 것들’ △우리학교 출신 선배와의 토크쇼 ‘선배등판’ △우리학교 동문 윤운수 휠라홀딩스 회장과의 인터뷰 ‘웃음꽃 FTLA’ 등이 주요 콘텐츠다. 또한 학내 현안을 다루는 ‘총장과의 대화’가 이번 달 4일 예정돼 있었으나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축제 마지막 날엔 △다큐멘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토크쇼 ‘방구석 홈스테이지’ △코미디 그룹 ‘빠더너스’와 우리학교 학생 오락쇼 ‘외대 탐구 생활’ △링크쿠플 비하인드 콘텐츠가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실시간 송출됐다.

온라인 마켓도 열렸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축제의 플리마켓과 운동장 부스를 온라인화한 것이다. △월드빌리지△채식 상품 공동 구매 시장인 ‘GO!

비전’ △카페 ‘파도’로 구성됐다. GO! 비전은 채식 상품 공동 구매 시장으로 재학생에게 채식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파도는 여성 작가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체 제작 상품과 여성 작가 창작물을 판매했다.

총학은 향후 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요구했다. 퀴쿠플을 기획한 구명준(사회·미디어 20) 총학 기획단장은 대동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랜 시간 준비했음을 전했다. 또한 “처음 온라인 축제 진행 여부를 밝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민범(중국·중외통 20) 씨는 “가수들 공연만으로 이뤄진 축제가 아닌 학교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축제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온라인 학술정보 검색대회 개최해

이번 달 9일부터 11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도서관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도서관 온라인 학술정보 검색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기간 동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문제에 대한 학생 답안을 온라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달 9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공개한 후 11일까지 학생 답안을 받았다. 이어 12·13일 양일간 정답을 공개하고 이의 접수를 받았으며, 16일에 총 52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 전원에게 △1등△2등△참가상 상품으로 각각 △태블릿 PC△블루투스 이어폰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수여했다.

문제 내용은 주로 우리학교 모바일 ID 앱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검색 방법을 묻는 것이었다.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도서관예약서비스△학술지 및 학술논문을 검색

색 도구 ‘디스커버리(Discovery)’ △강좌 제공 서비스 ‘이-러닝(e-Learning)’ 등의 이용 및 검색 방법이 출제됐다. 이외에도 논문 자료 참고 서비스 ‘레프웍스(RefWorks)’와 자료 검색 서비스 ‘학술DB’ 이용 방법 문제가 포함됐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다양한 학술연구 자료를 재학생에게 소개해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강동균 글캠 도서관 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의 자료 검색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메마른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에 단비 내리나

현재 우리사회 전반엔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성차별·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사회적 차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여러 해에 거쳐 법률안을 개정해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의무대상기관엔 △각급 학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각 대학 또한 이에 해당돼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우리

학교는 이번 해 4월 27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을 의무 실시 중이다. 이 가운데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각 대학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현재 우리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예방교육의 학생 참여율은 저조하다. 각 대학 주요 정보 제공 웹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게재된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우리학교 학생참여율은 43%에 불과했다. 다른 학교 또한 다르지 않다.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서강대학교△홍익대학교는 각각 △34.1%△49.1%△39.4%△14.3%로 학생 참여율이 절반 이상인 곳은 드물다. 실제로 지난 9월 22일, 여가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무대상기관 중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 실적 부진 기관 188개 중 76개가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였다.

이에 여가부는 이번 해 1월 발표한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대학교 학생 교육 이수율 70% 이상 달성 시, 예방교육 실적점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신설조항을 추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학의 교육 참여율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며 부진기관의 언론 공개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달 22일, 정찬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총 1,206건에 달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746건의 가해자는 학생이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예방교육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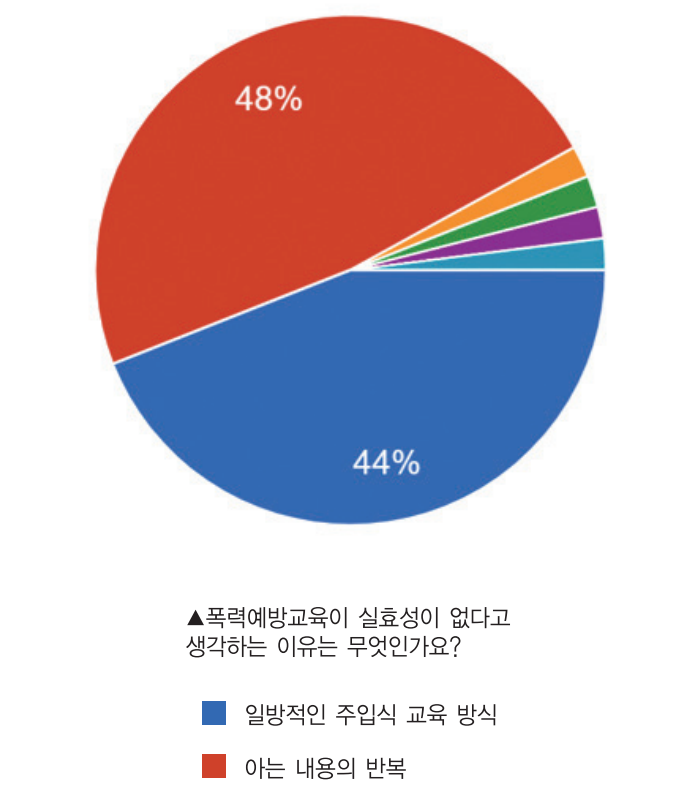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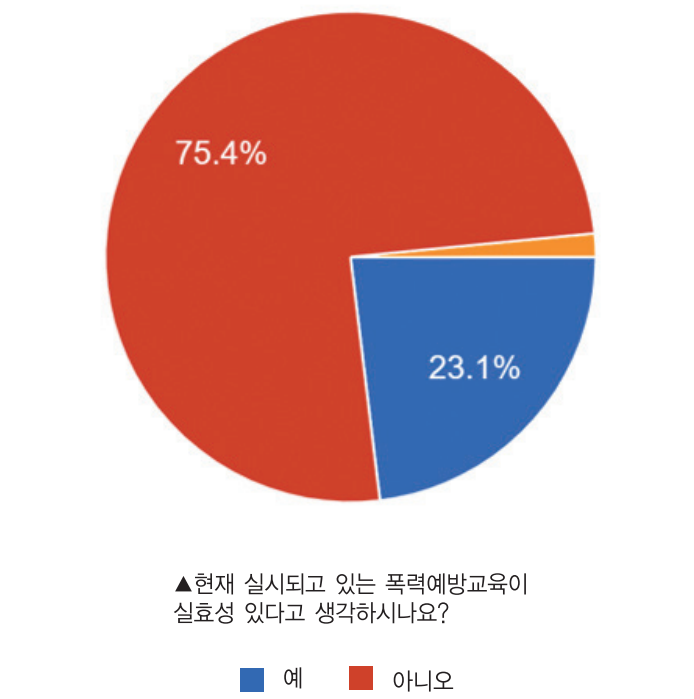
◆우리학교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2학기 우리학교는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제재를 가하는 의무화 정책을 시범 운영했다. 교원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 사용 권한이 제한되며, 학생은 성적 조치가 불가하다. 이는 이번 해부터 정식 시행됐다. 지난달 29일, 성평등센터는 우리학교 앱 메시지를 통해 교육 미이수 학생에게 성적열람이 제한된단 사실을 상기시켰다.

여가부 폭력예방교육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국 각 대학에선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해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우리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가정폭력△대학과 인권 및 젠더폭력△성매매△성희롱·성폭력 총 4개 강의로 구성된다. 강의 이수엔 2시간 20여 분이 소요된다. 강의를 수강한 뒤 10문제로 이뤄진 형성평가를 치러야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최지원(아시아·이란어 19) 씨는 “폭력예방교육의 구성과 내용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성적열람 제한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강했지만 젠더 폭력에 대한 재고가 가능했음을 언급했다. 나아가 성차별 문제 답론의 장에 대한 학생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선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강제로 듣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이다”며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폭력예방교육, 실효성은?

외대학보는 이번 달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5.4%의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아는 내용의 반복’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44%로 이따랐다.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59.5%는 “강의 영상을 재생해 시간만 채우고 다른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본인 인식 변화 도모 가능성과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형성을 위한 움직임 체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현재 학내에서 이뤄지는 폭력예방교육에 대해 상당수의 학생이 회의적이다. 왕희연(아시아·인도어 19) 씨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순 주입식 교육으로 실질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킨 어렵단 입장이다. 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강의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도 존재했다. 정규연(아시아·몽골어 19) 씨는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돼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배우는 게 없는 느낌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밖에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 진행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

단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성차별 문제는 학내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 학생이 쉽게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원지유(서양어·네덜란드 19) 씨는 “지난해 수강했던 교양과목에서 성차별을 주제로 토론할 때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성차별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능동적인 태도 형성을 촉구했다.

전문가 또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선 능동적 참여 형태의 교육이 마련돼야 한단 입장이다. 황인자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성폭력 문제는 성별 간 갈등·대립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인 강의보다 토론 방식의 수업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경제△문화△사회△정치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한단 소견을 밝혔다. 또한 김경희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이하 김 교수)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그룹 단위의 실생활 사례분석을 예로 들었다.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간접 경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공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캠퍼스 성평등센터는 △신입생 세미나 특강△새내기배움터△학생대표자 대상 교육을 시행해왔다. 또한 시기에 맞는 화제를 선정해 학기별로 전문 외부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해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계획했던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이나 각종 특강이 무산됐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평등센터에선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달 24일과 25일, 우리학교 글로벌 캠퍼스 성평등센터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대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염병 예방 지침에 따라 우리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1부 주제는 ‘남자가 보는 페미니즘’이며 2부는 ‘성폭력과 주변인’이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있다. 탁경구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강 및 토론회 등의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전히 우리사회엔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만연하다. 사회 전반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 폭력예방교육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한 해를 돌아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더 본(The 본)’(이하 글캠 총학)의 임기가 약 한 달 남았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는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공약 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일부 변경됐다. 양캠 총학의 △선거 당시 공약△공약이행 정도△남은 임기 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설캠 총학 공약과 이행 정도

지난해 12월 5일, 설캠 총학이 선출됐다. 당시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생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41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운동 당시 △교육 권리△문화△사회△생활△총장선출권 공동행동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총장선출권 공동행동	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김인철 총장 공약이행 내역 평가
생활·주거·복지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 및 통금시간 철폐△우리학교 상징 졸업 가운 제작△우리학교 인근 주거권 분석 및 자취 지침서 제작△자취방 방역 업체와의 협약△주거 공간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통학생들을 위한 교통편의 개선△학교주차장 학생 할인 재요구△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학내 학생 의사 결정권 참여 확대△흡연구역 조정에 관한 학교 본부와의 논의△이번 해 총선을 위한 동대문구 소재 대학 합동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개최
문화	△인근 문화센터 이용 할인△퀸쿠아트리아 콘텐츠 및 테마 강화 △HUFS SEASON GREETING△평사 초청 토크쇼 ‘이문 스케이’
교육 권리	△고시반 운영 체계화△군복무 중 이러닝(E-learning) 강의 확대 및 수강료 인하△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학처 면담 정례화△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수강신청 제도 개선△송도캠퍼스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공문장 확보△어학강의 성적 평가 방식 개선△융합전공 이수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개선 요구△캠퍼스 안전대책 강화
사회·연대·인권	△내 권리 지키기 매뉴얼 배포△더 평등한 새내기 맞이 사업△배리어프리(Barrier-Free) 캠퍼스 조성△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제도 개선△식이소수자 권리 보장△인권 관련 학외 봉사활동 기회 마련△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제휴 할인 및 확대 캠페인△학내 인권과 연대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학내 노동자와의 연대 강화△학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소통·자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회 공지 번역팀 구성△학내 자치공간 냉난방 시간 연장 및 운영 자율권 확보△학생자치 역량 강화 프로젝트△홈페이지 내 재정 관리 채널 운영 △총학생회 분기별 소식지 발행

▲설캠 총학 공약



▲설캠 총학

설캠 총학이 내세운 주요 공약 중 지난 학기 이행한 공약은 △군 이러닝(E-learning) 강의 확대 및 수강료 인하△내 권리 지키기 매뉴얼 배포△우리학교 인근 주거권 분석 및 자취 지침서 배포△재수강 제한 학점 완화△홈페이지 내 재정 관리 채널 운영 등이었다. 또한 △교내 흡연구역 인식 조사△수강신청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융합전공 이수자 대상 설문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학기엔 지난 학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문동 비건 지도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융합전공 이수 학생 설문조사를 토대로 각 단과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3일엔 우리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다음 해 예정된 12대 총장 선거에선 학생에게도 총장후보 선출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번 달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으로 대동제 ‘퀸쿠아트리아 플러스’를 진행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일부 있다. 우선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제도 개선’과 ‘학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가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제도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대비한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이 공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학생복지 차원의 통학생 교통편의 개선 및 학교주차장 학생 할인도 해결되지 않았다.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재학생은 아직까지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재(영어·영문 20) 씨는 “통학생이 가진 어려움을 설캠 총학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교통편의 개선 등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남은 임기 내 모두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예산 문제로 등록금 분납제도 시행되지 못했다. 설캠 총학은 나머지 공약을 학교 측과 협의 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캠 총학 공약과 이행 정도

지난해 11월 29일 선출된 글캠 총학은 22개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구체적인 공약 사항은 아래 표를 통해 임의로 분류했다.

복지	△기숙사비 분납제도△교내 안심벨 설치△교양관 엘리베이터△도서관 프린터기 설치△셔틀버스 노선 개선△스마트도서관 책공 책구△은행나무 그늘망 설치△화장실 비누·가글액 설치
문화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 동문△모교방문단 발족△별을 담은 영화제△알아두면 쓸 데 있는 외대사전△우리학교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교육	△성적평가 항목 필수 기재△수강신청 제도 개선△재수강 학점 제한 폐지△창의융합포럼△학점포기제△1학년 회화 절대평가
학생 자치	△기존 및 경쟁 선본 정책 반영△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

▲글캠 총학 공약



▲글캠 총학

글캠 총학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전반적으로 학생 복지 개선을 위한 일이다. 또한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총장직선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글캠 총학이 제시한 22개의 공약 중 12개가 완료돼 약 54%의 공약이행률을 보인다. 학생 참여 총장 후보 선출권이 이뤄졌으며, 이번 학기 총학 홈페이지 개선을 완료했다. 박 회장은 이행한 공약 중 “총장선

출권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이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공약도 존재했다. 기숙사비 분납 제도는 회계 시스템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미리 받고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지만 분납 제도를 시행할 시 예산 산정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총학에 따르면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예산 손실이 커 교양관 엘리베이터 공사 및 은행나무 그늘망 설치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공사를 위해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단 의견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정전토론회 당시 글캠 총학은 ‘교양관 엘리베이터 공사 및 은행나무 그늘망 설치’ 공약에 대해 예산 부족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박 회장은 “이번 학기 시행 예정이던 대부분 공약이 학교 측의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잠정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현(통번역·영문 19) 씨는 “코로나19란 특수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총학이 학교의 재정난 및 공약이행 현황을 더 자세하게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남은 임기 총학의 행보는?

김 회장은 남은 공약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기 말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도 남은 임기 동안 진행 중인 공약 완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점포기제’와 ‘성적평가 항목 필수 기재’는 학생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다시 학교 측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총동문회와 진행하는 교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학생 대표들과 함께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동문으로 교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설캠은 지난해 총학생회 부재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지난해 글캠 총학이었던 제40대 총학생회 리액션은 당시 27개의 공약 중 19개를 이행했다고 밝혀 이행을 약 70%를 주장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요 공약이었던 총장 선출권 재정립, 광역버스 신노선 유지 추진은 이뤄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이 가운데 이번 해 양캠 총학은 남은 임기동안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마지막까지 이목이 집중된다.



▲ 양캠 총학 로고

우리학교가 직면한 문제, 정보격차

우리학교 내 정보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재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학교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클래스(e-Class)△학교 홈페이지△한국외대애플리케이션(이하

외대앱)으로 전달한다. 또한 우리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공식 SNS 계정과 학과별 단체채팅방을 통한 정보 전달을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학교 학생의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자.

◆정보격차란 무엇인가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정보 접근 수준은 91.7%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령층△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과 같은 정보 취약층의 정보 접근 수준은 69.9%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학교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격차 현상이 생기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정보 습득 수단과 환경에 따라 전달받는 정보의 양이 상이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우리학교 재학생 사이 정보격차는 심화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내정보 접근성 격차 현황

우리학교 공지사항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해 전달된다. 이외에도 게시된 수강편람과 학사일정을 통해 △학사제도△수강신청△졸업 이수학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 공지사항의 경우 △문자△이메일△외대앱로 발송된다.

학과·학부 공지사항 전달의 경우 △메신저앱 ‘카카오톡’ 단체채팅방△학과·학부 사무실 게시판△학과·학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교과목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해당 교과목 이클래스를 통해 게재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식의 공지 전달이 미흡하단 의견이 있다. 안지현(상경·국통 19) 씨는 “이중 전공 변경 기간과 같은 공지 등록이 외대앱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홈페이지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아 불편하단 지적도 있다. 이런 불편은 홈페이지 접속 빈도를 낮추고 중요 공지를 놓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윤병호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팀장은 “관행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기에 △문자△이메일△외대앱을 통해 모든 공지를 전송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권성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종지 팀장은 “모든 공지를 △문자△외대앱△학생 이메일로 보내면 피로를 느낀 학생이 알림 자체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알림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은 대부분 공식 SNS나 학과·학부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 행정·행사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렵다. 이지민(통번역·영통 20) 씨는 “SNS를 이용하지 않아 학기 초반엔 고립감을 느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설캠 총학회장은 “이런 불편함 해소를 위해 공식 SNS 외에 각 단과대학 및 학과·학부 단체채팅방을 대부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다. 하지만 일부 학과·학부는 단체채팅방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과·학부 단체채팅방에 탈퇴한 학생은 정보 전달에서 소외된다. 글캠 총학은 SNS 비사용자가 겪는 고충을 인지해 이번 학기 총학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러나 온라인 사용 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총학 홈페이지 개설 소식을 모르는 경우엔 여전히 정보 습득이 원활하지 못하다.

우리학교는 유학생과 장애학생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 양캠 국제입학관리팀은 한국어로 된 주요 학사공지사항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해 유학생에게 메일로 발송한다. 또한 국제입학관리팀의 산하 자치 기구 ‘GSA(Global Student Association)’와 ‘GFA(Global campus Foreigners Association)’는 학사공지사항 외의 정보를 요약해 각각 공식 SNS에 업로드하고 유학생에게 이메일로도 전송한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애 여부 파악 후 장애학생이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수훈 글캠 학생지원팀 과장은 “장애학생과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캠 총학은 번역팀을 구성해 중요 사안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 글캠 총학도 중요 공지를 △국제학생회△영어통번역학부△통번역협회와 협력해 외국인 학생에게 전달한다. 예르비사이리 미이카(상경·국통 19) 씨는 “학교 측과 GSA가 대부분의 정보를 번역해줘 이메일로 필수 정보는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내 모든 정보에 대한 번역이 이뤄지지 않기에 실시간 진행 활동에 대한 정보습득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러진 정보격차

이번 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비대면 수업은 동영상상을 이클래스에 게재하거나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Webex)’와 ‘줌(Zoom)’을 통해 원격으로 이뤄진다. 과제나 시험 역시 대부분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IT 기기 소지 및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이다. 이에 IT 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 놓인 학생은 불편을 겪고 있다.

설캠 총학에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터넷

연결 가능 공간 확보△컴퓨터실 개방△컴퓨터실 내 웹캠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일부 강의실을 개방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회장은 학교 측에 학생들의 기가재 부족 현상을 알렸고 교내 인터넷망을 더욱 원활하게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른 학교 사례

다른 대학교도 학교 홈페이지나 이클래스로 정보를 전달한다. 과제 제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돼 대학생엔 노트북이 필수품이다. 이에 일부 학교에선 노트북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재학생에 한해 1인당 하루 다섯 시간, 한 학기 최대 100시간까지 노트북을 대여해준다. 또한 캠퍼스 내 PC 실습센터를 여러 곳 뒤 교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노트북△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기자재△태블릿PC 대여를 통해 기기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자 전자기기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대학교도 있다. 지난 4월 27일,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비대면 온라인강의 수강 지원 장학금’을 통해 비대면 수업 수강이 어려운 학생의 전자기기 구입 시 일부 비용을 학교 측에서 부담했다. 연세대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며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자 기기 대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그보단 구매 비용 지원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낫다고 생각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T 기기 대여나 보조금 지원은 정보 접근성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취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대학들이 정보 격차 해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회의 땅 러시아, 나에게겐 어떤 기회를?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며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한 2년을 보냈다. 러시아에서 보내는 3학년 1학기만큼은 우리나라보다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러시아어 공부도 할 수 있겠다 생각에 팬스레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비행기 좌석 화면 속에 뜬 러시아 영토 위 내가 탄 비행기를 보니 설레던 마음 위로 막막한 느낌이 눈처럼 덮이기 시작했다.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이번 해 1학기 7+1 프로그램을 통해 다녀왔다.

내게 러시아는 추운 날씨에 사람들마저 차가울 것 같은 이미지를 갖는 나라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그 편견이 모두 깨졌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내 러시아인 친구들이다. 버디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러시아인 친구들은 정말 착하고 따뜻했다. 교환학생 초반에 힘들거나 모르는 부분에 있어 항상 도움을 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던 날의 분위기와 경험은 추운 모스크바 날씨 속 벽난로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 수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비록 유창하지 못한 러시아어 실력이었지만 교수님께선 러시아어를 어려워하는 우릴 이해해주셨고 잦은 질문에도 흔쾌히 답변해주셨다. 그 덕에 수업에 항상 흥미를 잔뜩 안은 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친구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며 주눅들었던 마음이 자신감으로 바뀌기도 했다.

모스크바의 밤 역시 인상적이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해가 빨리 지고 금방 어두워진다. 초반엔 이런 점이 정말 아쉽고, 춥고 어둡고 어두운



로워진 것이었다. 이렇게 수업과 현지 생활을 통해 러시아 문화를 겪으며 점점 크고 광활한 분위기에 몰들었다.

모스크바에 가게 된다면 여러 거리를 많이 걸어보는 걸 추천한다. 특정 장소를 꼭자면 △고리키 공원 △모스크바 강스전 러시아 박물관화장 '베데엔하'에 가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끝없이 넓게 펼쳐진 강과 고리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답답했던 머릿속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베데엔하 스케이트장에서 신나게 달리면, 걱정거리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무르만스크'란 지역 여행 역시 내게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에서 본 오로라와 계속해서 쏟아지는 별들 앞에서 내가 가진 걱정거리들은 그저 먼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익숙한 모스크바의 시내가 아닌 새로운 지역 여행은 러시아어 활용과

경험에 있어 큰 자산이 됐다.

3월 중순에 모스크바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심각해져 봄을 맞이하는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들을 드나들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해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그러나 타지에서 락다운을 경험하고 버려낸 내 일상도 결코 의미가 없진 않을 것이다. 다시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엄청난 상황을 견뎌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얻은 광활한 마음가짐이 러시아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 그 이상의 큰 배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통해 러시아인들이 보여줬던 △색색의 조명 △푸른빛으로 춤추던 오로라 △따뜻함처럼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길 것이라 생각한다.

글 · 사진 권지희(국제지역 · 러시아 18)



프랑스

<나의 임신중지 이야기>

-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임신중지 이야기'는 두 장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장은 저자이자 주인공인 '오드 메르미오(이하 오드)'가 말하는 임신중지 이야기. 두 번째 장은 남성 의사 '마크 조프란(이하 마크)'이 보는 임신중지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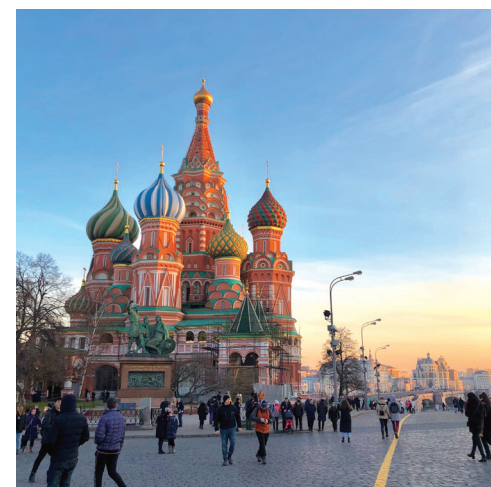
첫 번째 장에선 임신중지 여성이 겪는 심리 변화가 섬세히 그려진다. 오드는대학 졸업 후 카페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프랑스는 1975년에 임신중지가 합법화됐음에도 오드는 시술받을 때까지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아직 사회는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준비가 됐음에도 일주일간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단 법안과 출산을 권유하는 의사에 오드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함을 느낀다. 별거 아니라며 가벼운 말을 건네는 주변 반응 역시 오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오드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떨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독자는 첫 번째 장에서 임신중지 당사자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고민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임신중지 당사자에게 가볍게 '시술 빨리 끝난대 나 괜찮아질 거야'와 같은 위로를 건넨다. 그러나 오드에 따르면 임신중지 당사자에게 이런 위로는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지긋지긋한 말이다. 임신중지 당사자가 불안을 고백할 때, 독자는 어떤 진실한 위로를 건네야 그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오드의 주변 친구들이 오드에게 전하는 위로와 용기를 보며 독자는 임신중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에 다가갈 수 있다.

두 번째 장 역시 임신중지 당사자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첫 번째 장과 다른 점은 화자가 임신중지 당사자가 아닌 남성 의사인 마크란 점이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기 전, 마크는 불법 임신중지 시술로 죽을 위기에 처한 환자를 보며 임신중지 시술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한다. 남성인 마크는 이에 대해 배워가며 여성들의 다양한 사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임신중지 당사자에 마크는 공감의 태도보다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인다. 마크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환자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료의 '이해하고 싶다면 듣고 믿어야 한다'는 조언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태도를 버린다. 이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

책의 원제는 'Tout ce que je vous le dis(당신에게 말해야 했어요)'다.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나라임에도 고립을 겪은 오드는 임신중지 시술 이후 8년 뒤에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임신중지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사회의 분위기는 경직돼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임신중지 당사자 마음에 공감해보고, 임신중지 시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날씨가 지겹기까지 했다. 그러나 △거리△건물 외곽△나무 위△하늘에 가득 찬 조명이 모스크바의 어두운 밤을 빛냈다. 조명과 야경은 그저 도시 조경을 차지하는 작은 부분이겠지만 내겐 어둡고 칙칙한 밤이 한순간에 밝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막막함△조급함으로 난 내 마음가짐이 이 큰 도시와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 새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Global HUFStory ⑤

대학의 심장, 지식의 보고 -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이사주당 묘소



▲용인 태교의 숲 입구 -글로벌캠퍼스 남쪽 뒷산



▲글로벌캠퍼스 올레길 코스 -이사주당, 태교의 숲

물인 어문관에서 개관했다. 1985년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어문관이 너무 멀다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렴해 자연과학대학 내에 자연과학계열 도서관을 별도 개설하기도 했다. 1989년에 이르러 현재의 도서관 전용 건물을 착공해 2년 뒤인 1991년 8월 23일, 학내 모든 특수 도서관을 통합한 지금의

설치해 일반 자료실의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최신 장서를 더 많이 구비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대학 간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2009년부터 학생이 각종 전자 저널 및 웹 사이트에서 클릭만으로 쉽고 편하

게 참고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도서관은 변화하는 연구·학습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다양한 교육 활동과 공모전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 성장에 이바지하며,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도서관 이용 정보 등을 교류하고 있다.

최초 건축된 이래 30년 가까이 왕산을 지키며 글캠퍼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도서관은 이제 글캠퍼 설립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바로 △구성원의 사용 편의△건축 미학적 요청△학생의 학습 효과 및 교수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미래형 도서관을 짓겠다 구상이다. 이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글캠퍼 도서관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 스마트 기능이 강화된 종합 지식정보문화 제공 공간이자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지식의 보고, 대학의 심장으로 불리는 도서관이 학내의 모든 지식이 모여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쉬는 곳으로 꾸며질 미래가 궁금하다. 도서관이 백년관과 함께 용인 처인구 모현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래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청년 열정을 앗아가는 열정페이

‘열정페이’는 청년 노동에 무급 또는 최저시급 미만의 대가를 주는 등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주로 쓰이는 말이다. 인턴·현장실습의 경우 교육과 경험이란 명분 아래 청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열정페이가 만연해진 요즘, 우리학교 재학생은 열정페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운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작아지는 청년 노동의 가치

청년 노동의 큰 문제는 노동력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단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7조엔 고용주가 근로자 △가사△관계없는 업무 종사△혹사 등을 시키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열정페이는 △대학원 조교△실습현장△아르바이트△인턴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청년에게 열정페이와 같은 노동력 홀대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생물학연구정보센터를 포함한 6개 전문연구정보센터는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생 중 62%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고 29%는 공식적인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생 40%는 연구 외 다른 업무량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조교 활동을 통해 받는 월 급여는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정도다.

교육부가 조사한 청년노동실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4만5,221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했지만 55.5%인 8만580명이 30만 원 미만의 실습비를 받았다. 이처럼 청년 노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보편적인 세태가 돼버렸다.

◆우리학교의 상황

윤재식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 담당(이하 윤 담당)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인턴과 달리 학점 인정이 되는 학교 프로그램인 현장실습은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의 경우에도 현장실습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학교는 6개월 실습 참여 학생에게 인턴 지원금 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후 현지에서 매달 300달러씩 총 1,800달러를 준다. 이 같은 학생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윤 담당은 “비록 현장실습 임금이 최저시급을 충족하진 못해도 이는 실습생에게 좋은 경험이 되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달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외대학보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년 노동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인 노동력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곳은 주로 어디였나’는 질문에 60%가 ‘아르바이트’를 답했으며, ‘인턴·현장실습’이 33.3%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한 대우 유형으로 ‘근무량보다 부족한 임금’이 50%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과도한 업무’와 ‘담당 업무 외 지시’가 각각 18.8%와 12.5%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51.3%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경험을 쌓기 위함△대체 가능 업무 기회 획득△자금·생활비 부족△중도 퇴사 후 불이익 걱정 등이 있었다.

현재 취업 준비 중인 김동현(상경·경제 17) 씨는 “인턴 당시 업무량보다 노동 환경과 급여가 매우 좋지 않아 도중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져 부당한 대우에 문제 제기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해원(아시아·태국어 16) 씨 또한 “이번 해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채용 기회와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의 기회가 감소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인턴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년 노동 조건 해결책

지난달 1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무급이나 저임금 속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했다. 경험이란 명목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정페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습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혼재된 현장실습 개념을 명확하게 정한다. 학기 단위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과 자율로 구분했다. 새로 생긴 개념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실습이 운영된다.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와 실습 △양식 △요건△운영 절차 등에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대상으로 해 재정지원사업 등의 평가지표로도 삼을 방침이다. 기업체에 출근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에 해당한다. 표준현장실습은 교육시간을 고려해 참여 학생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한다.

체험이나 관찰 방식의 현장실습은 자율현장실습에 해당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이 마련한 교육과정을 수업의 일

환으로 수강하거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 중 학생이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도움을 준 대상으로 직장 내 상사가 60%, 정부 기관이 40%를 차지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람은 28.6%였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고용주 측에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 상사가 도움을 줘 노무사를 통해 신고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단 의견도 존재했다.

글캠프 진취센터 윤 담당은 “학생이 현장실습 시 경험할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해 양캠퍼스에 비상 연락망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학생은 필요한 경우 진취센터에서 △대면△메일△전화△스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른 시일 내 교육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학교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09.28(월) ~ 10.08(목)	2020.11.09(월) ~ 11.20(금)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1.25(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1. 2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09(수) 14:00
등록 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14(월) ~ 12.1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착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배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미국 대선, 우리나라에 불어올 바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달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미 대선)가 치러졌다. 개표 막바지까지 이어진 경합 끝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이하 바이든)와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후보(이하 해리스)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미 대선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놓인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당선될 것이며, 어떤 결과가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았다. 이에 스미 대선의 전개 및 특징△당선인 특징△한미 관계에 찾아올 변화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해 미 대선의 전개와 특징

이번 달 3일, 미 대선이 치러졌다. 개표 막바지까지 경합하며 재선에 도전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바이든 모두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다. 결국 이번 달 7일, 바이든과 해리스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며 당선이 유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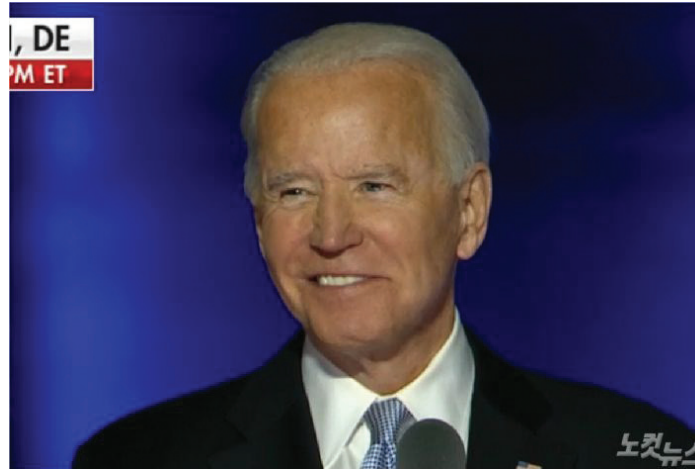
이번 미 대선의 특징으로 △높은 투표율△우편투표 확대△트럼프의 재선 실패 및 불복 등이 있다. 선거는 66.9%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편투표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며 예측이 뒤집혔다. 미국 보도채널 'CNN'은 높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유색인종·저소득층 투표를 상승과 미국정치 양극화를 꼽았다. 특히 선거 과정에 정파성이 강하게 작용해 양 진영이 결집했던 주장이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이번 미 대선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가 확대 시행됐다. 본래 미국에선 △오리건주△유타주△워싱턴주 등 5개 주를 제외하곤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우편투표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대다수의 주가 투표 당일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우려해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를 허가했다. 우편송달 마감 시간은 주마다 상이해 현지 시간으로 7일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선에 실패한 역대 미국 대통령은 총 44명 중 11명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엔 △제너럴 포드△지미 카터△조지 허버트 부시 세 명뿐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28년 만에 '불행한 대통령 클럽*'의 새 일원이 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낙선 원인으로 △민주당 지지자 결집△백인 노동자의 변심△코로나19 사태 등을 꼽았다. 후보가 결정되고 대선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반(反)트럼프'란 목적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했던 것이 중론이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이 등을 돌린 것도 크게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 정부에 실망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정부는 대체로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실패했던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건 위기가 도래했고 경제 문제가 이를 뒤따르며 유권자의 신뢰가 떨어졌다.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포함한 선거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는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구체적인 소송 계획을 내놓으며 각 주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달 5일, 미시간주와 조지아주를 상대로 개표 중단을 청구했지만 늦은 소송 제기 시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어 이번 달 8일, 연방대법원에 선거 불복 소송을 걸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등의 우편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에 동의하며 행진집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제 통신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불복해도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출처: 노컷뉴스)

◆바이든의 정치적 입장과 국제 관계

바이든은 △민주주의△인권△평화 등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여성△아시아계△흑인이란 당사자성을 가진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부유세 인상△적극적 난민 수용△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국면과 관련에선 건강보험제도 보완과 추가 경제 예산 편성 등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뒤 다음 해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중도 세력으로 분류되는 바이든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상원의원 출신으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해 지도자로서의 결단보단 물밑 실무 접촉을 우선시하는 정치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달 9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기점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존슨 영국 총리△트루도 캐나다 총리 등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은 다소 뒤늦은 이번 달 14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초유의 대선 불복 사태 속에서 외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 확정을 축하하면서도 트럼프 정부와 맺은 협정 이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번 달

12일,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 직접 통화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와 우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에서 관심이 집중된 주제론 △대북 관계△대중 관계△방위비 분담 등이 있다. 이재목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바이든의 과거 발언에 주목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가 동맹에 대한 갈취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이전 정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한미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 부담 역시 비교적 축소될 수 있다.

바이든이 대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 우려도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이하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바이든의 상원 외교위원장 경험을 언급하며 "오바마의 정책을 계승하겠지만 북한의 반응을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에게 대북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는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이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중 관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부수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려들 수 있던 것이다. 이 경우 위안부 협상을 비롯한 한일 간 갈등에 미국의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외교적 목표 성취와 건전한 한미 동맹 유지의 병행을 강조했다. 더불어 "바이든과 트럼프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국익에 있어 객관적인 손익계산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불행한 대통령 클럽: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들을 이르는 말

**바텀업(Bottom-up): 실무진의 의견을 수합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의사 결정 방식

***전략적 인내: 적극적 행동보단 경제적 압박을 가하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 간: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 제: 대학생 A는 평소 영어 공부를 위해서 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 파일을 P2P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내려받아 한글 자막 파일을 만든 다음 드라마 파일과 함께 영어 공부 목적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영어 학습 목적으로 올린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아직 한국에서 방송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③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외부에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
- ④ 미국 드라마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인터넷 카페에 함부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 (<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불붙은 상속세 논란, 분배와 성장의 딜레마

최근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가 가진 18조 원가량의 주식이 직계존속에게 상속될 시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대기업 경영 존폐가 우려되던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상속

세에 대한 여론이 대립 중인 가운데 민법과 경제학 전공 학자인 가정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준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상속세의 정의와 납부 및 산정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상속세란 사망자 즉 피상속인이 유언·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내 피상속인 주소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해요. 상속인이겐 순상속재산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한 금액이 상속세로 부과되죠.

순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재산 10억 원과 부채 4억 원을 이전했다면 순상속재산은 6억 원이 돼요. 상속세율은 순상속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상속된 재산이 많다면 자연스레 상속세 또한 큰 금액이 부과되죠.

Q2. 상속세제의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상속세제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속세제 목적은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고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요,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 중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들 상속에 세금을 매겨 국민을 위해 사용될 세수 조달이 목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상속세 세수 비중은 전체 국세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해 소득재분배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워요. 상속세의 이상인 빈부격차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적연금△재정지출△조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과 재정지출 효과는 일정 기준에 도달 혹은 향상하는 데 비해 조세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 상생을 위해선 전체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에 집중해야 합니다.

Q3. 최근 상속세제 찬성과 반대 측 사이 대립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양 측 주장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상속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상속세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세급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해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부채 등을 계산하는 데에 큰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지, 상속세가 다른 세금보다 징수비용에 있어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이들은 이중과세 문제를 비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할 때 그는 이미 △보유세△소득세△양도세△취득

세 등 다양한 세금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피상속인이 이 의무를 완료해 그 집의 소유권을 얻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은 그 집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순 없어요.

Q3-1. 상속세제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본이득세는 근로소득 외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
금입니다. 주식을 통해 번 돈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
죠. 상속세의 역할을 자본이득세가 담당하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상
속세가 적은 이유도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
은 자본이득세를 소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고 해요. 자본이득
세의 총액이 상속세의 총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Q4.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55%의 상속세율을 가진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상속세 찬성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1%도 되지 않아요. 상속세를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반면,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절대다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가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또한 재벌을 향한 국민의 반정서도 무시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은 6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에요. 결국 국민의 감정적 판단이 상속세 제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1.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 주식평가액에 20%의 할증률이 붙습니다. 주식과 같은 특정 분야 상속에만 할증이 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할증 제도는 최소한의 개인에게 더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인재산엔 △동산△부동산△주식△현금 등이 있어요. 일반 개인의 재산은 현금·부동산이 주를 이루지만, 큰 부를 소유한 개인은 동산·주식이 주된 재산을 형성하죠. 물론 일반 개인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정도의 큰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이런 할증으로 소수 최상류층을 향한 선택적

세금 징수가 가능해지죠.

Q5.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아 보이는 것은 명목세율 일 뿐, 실효세율은 그리 높지 않단 지적이 있습니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목세율이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은 일정 소득에 각종 공제 및 감면을 거쳐 산출된 세율이죠. 즉 실효세율은 실제로 납부가 요구되는 금액을 일컬어요. 우리나라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가 큰 편이지만 상속세를 아주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괴리가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는 공제제도에 의거합니다. 만약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50억 원 재산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30억 원, 자녀는 5억 원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0억 원 재산 중 아내와 자녀가 각각 법정 상속분 30억 원, 2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아내는 공제제도로 인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자녀는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해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부가된 상속재산 중 일부 공제가 많습니다. 명목세율은 높아 보이지만 정작 실효세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또한 부부간 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6. 앞으로 우리나라 내 상속세제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요?

세금 관련 제도의 목표 수정이 필요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다
수인 일반 국민은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발감과 재벌에 대한 반감이 있
는 경우가 많죠. 이를 따져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장 상속세를 폐
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상속세제 논의에서 가장 필요한 시안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필요하죠. 그 대안이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고 균등한 분배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란 가정하에 해당 제도를 평가하는 태도도 필요하죠. 감정적 주장을 최대한 배제한 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찾아오시는 길

- 위치: 서울캠퍼스 본관 2층 220호

- 전화번호: 02-2173-3467~8

- 이메일: kongzi@hufs.ac.kr

- 홈페이지: http://gongja.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계 단기연수 과정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로 문의 (Tel. 02-2173-3467~8) 또는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중국어 강좌

- 회화, 新HSK, HSKK, 영화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수강 신청 최소 인원 3명 미달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환급 제도: 외대학생인 경우 수업 95% 출석 시, 수강료의 70% 환급
- 시간표

08:00 ~ 08:50	[회화] 매일
10:00 ~ 12:00	[新 HSK] 화 · 목요일
10:00 ~ 11: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5:00 ~ 16: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5:00 ~ 17:00	[新 HSK] 화 · 목요일
18:00 ~ 19: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8:00 ~ 20:00	[新 HSK] 화 · 목요일
19:00 ~ 19:50	[회화] 매일

2.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기회 제공(추천)

-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추천)

가. 모집과정

1. 연수과정
 - (1) 연수기간: 1학기, 1년 비정규과정
 - (2) 연수분야: 어학연수
 - (3) 연수학교: 중국 내 대학교(매년 중국 정부의 공고문에 따름)
 - (4)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
2. 석사과정
 - (1) 학과: 한어국제교육
 - (2) 기간: 과정 2년 정규과정
 - (3) 학교: 중국 내 대학교
 - (4) 신청자격: 만 45세이하, 학사학위 소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나. 장학금 지원 내용

1.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전액지원
2. 매월 생활보조비 지급

다. 신청 및 선발

1.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부터 모집(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2. 선발 방식: 면접 + 서류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후회 없는 삶

내 좌우명은 ‘저지르고 후회하자’다.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싶다. 그래서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한다. 후회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과정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 성장할 수 있겠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 학보 방중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다녔다. 당시 전공 여를 공부하기 위해 무턱대고 주5일 반을 등록해 학원도 다니고 있었다. 또한 활동하고 있는 밴드 동아리 공연 연습도 한창이었다. 모두 내가 자처한 일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엔 정말 벅찼다. 이것이야말로 내 좌우명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저지르고 후회하는 상황이었다.

처음 학보사에 들어왔을 땐 학보 구성원 중 한 명이 내게 기자가 꿈이냐고 물어봤다. 학보사는 대부분 기자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이뤄졌다. 내가 학보사에 지원한 이유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보사 지원 당시 내 꿈은 기자가 아닐뿐더러 기자란 직업은 생각해보지도 않아 지원을 매우 망설였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 같아 용기 내 도전했다. 역시 예상대로 기자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평소 난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꺼린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한 경험이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내가 기사 작성을 위해 직접 전화로 취재하는 일은 압당한 현실이었다. △구경△다른 대학교수△시청△우리학교 각 부처 등에 전화했고 매번 전화하기 전 심호흡만 수백 번 한 기억이 떠오른다. 밤샘 기사 마감 작업 일도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정신·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적도 많았다. 이렇듯 내게 학보 기자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오로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단 이유로 지원한 게 후회되기도 했으며 스스로가 욕심만 앞선 한심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학보 활동에서 후회만 있던 건 아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로 인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걸 느꼈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된 느낌이었다. 비록 당장은 바쁜 학보 활동이 힘들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 삶 속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보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미래에 학보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가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간이 지난 지금 여름 방학 때와 지금껏 해온 학보 활동을 생각해보면 당시엔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때의 내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단 생각이 든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장 겪게 될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하며 살고 싶다.



김채현 기자

[책 ‘페인트’를 읽고] 만들어진 행복

과거엔 출산이 종족 유지 방법이었다. 아이가 곧 노동력이었고, 출산은 본능이자 의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 결국 소설 ‘페인트’ 속 미래엔 부모가 아이 키우길 꺼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국가는 NC센터에서 직접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NC센터는 국가 운영 입양기관으로 아이를 19세까지 책임진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보조금을 포함해 많은 것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한다. 그러나 입양 제도가 때론 악용되기도 한다.

주인공 제누는 NC센터에서 가장 오래 지낸 아이 중 하나다. 그곳의 아이는 ‘페인트’란 단어로 통용되는 부모면접을 통해 부모를 선택한다. NC센터 출신이란 꼬리표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져 대부분이 부모를 선택해 센터를 떠나려고 한다. 이들은 13세부터 부모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제누는 처음 입양을 희망한 부모에 거부감을 느낀다. 입양 자격을 갖춘 부모가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입양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후 미숙하고 진실한 ‘하나’ 부부가 제누와 연결된다. 제누는 조금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자유로운 하나 부부 모습에 끌린다. 하지만 제누는 부모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부모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결국 입양을 거절하고 소설은 끝난다.

현실에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소설

속 NC센터는 이상적인 센터다. 아이를 원하는 부모와 그 부모를 원하는 아이가 면접을 통해 이해관계를 맞추고 가족이 된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홀로그램 속 본인의 모습을 최대한 꾸미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한단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속에서 위선과 가식을 느낀다. 당장의 입양을 위해 좋은 점만 드러낸 부모에게 언젠가 실망할 것이라 여긴다.

이 소설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대부분 소설 속 가족은 항상 주인공 편이자 든든한 울타리다. 주인공은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치유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갖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완벽한 가족은 없다. 부모와 아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완전함에 다가간다. 작가는 이들 관계 속에서 모두의 노력을 강조한다. 양쪽 모두 완벽할 수 없기에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를 인정하며 소통해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 사랑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다. 부모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출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태어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꾸꾸는 경우는 흔치 않다. 우리 누군가의 부모가 될 가능성을 품고 살아간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를 보고]

성선설과 성악설, 선택의 기로에서

예전부터 비행 청소년은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10대의 악랄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뉴스에선 10대가 △강도△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내용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급증하는 10대 강력 범죄 비율에 비해 국가가 내릴 수 있는 사회적 징벌은 한정적이다. 이에 소년법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화와 합당한 처벌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교화와 처벌, 무엇이 우위인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소년법 논란의 화두다.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의 주인공인 ‘알렉스’는 무죄판으로 불리는 악질이다. △강간△강도△폭력 등을 서슴지 않으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다. 알렉스의 무자비한 악행은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진다. 그는 수감 생활 중 ‘루도비코 실험’에 참가한다. 이 실험은 범죄 예방을 목표로 삼은 프로그램이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특정 신호에 대한 일정한 자극을 줘 범죄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문제는 해당 실험이 지나치게 비인권적이란 점이다. 강제로 범죄 장면을 볼 때마다 구토와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입한다. 알렉스는 실험 절차를 거치며 범죄 거부에 대한 무조건 반사를 체화한다. 실험으로 인해 더이상 범죄를 행하지 않게 된 그는 사회로 돌아가 고난을 겪는다. 자신이 고통했던 피해자가 반대로 그를 가해한다. 또 옛 동료가 실험으로 인해 약해진 자신을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만신창이가 된 알렉스는 출소 후 처음으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사람이었다. 선의를 베푸는 작가는 주인공을 이용해 반정부 운

동을 펼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작가는 정부의 루도비코 실험을 비판하기 위해 알렉스를 극한의 상황에 몰았다. 결국 알렉스는 자살을 시도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다시 주인공을 치료 전 상태로 되돌리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영화의 표면 주제는 단순하다. 범죄자가 날뛰는 사회와 인간성을 쉽게 박탈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 우리에게 묻는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상이하지만,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통제된 무력이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리라 법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알렉스의 변화는 관객에게 도덕적 판단조차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사이 가치 판단을 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작자는 제목 시계태엽 오렌지가 과학에 의해 개성을 상실한 로봇 같은 인간을 뜻한다고 밝혔다. 완전 범죄가 없는 순수한 세상을 명분으로 국가가 인간을 정형화하면 이상적 사회라 볼 수 있을까? 교화와 징벌의 균형을 국가가 통제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킨다.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인 △1984△멋진 신세계△우리를 모두 국가에 종속된 개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대해지는 정부의 권한 속 우리의 대처와 판단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1049호 학보를 읽고

지역사회에도 환절기가 찾아왔다.

박혜민 (아시아·태국어 16)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어느덧 낙엽과 함께 과제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단풍놀이는 갈 수 없어도 길거리에 알록달록 물든 단풍으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다. 우리학교의 SWITCH 1 ON(스위치 온) 수업 방식처럼 이번 달의 날씨도 변덕스럽다. 외대학보에선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노숙농성을 포함한 여러 쟁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편) 총학은 김민철 우리학교 총장과 대화할 요구하며 이틀간 총장실 앞 밤샘 대기를 단행했다. 그럼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자 총학은 설편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본관을 지나갈 때마다 간이 천막 아래 추위에 떨며 노숙농성을 하는 총학이 대견스러웠다. 학교와 학생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길 희망한다.

태국어 전공자로서 태국 시위 기사가 반가웠다. 이번 해 7월 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이후에도 잦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정부 시위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앞으로 태국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 1970년대의 모습을 보는 듯해 더욱 관심이 간다. 학생 및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한 이번 시위는 주변 태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이런 상황을 정환승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

아갈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설 ‘미·중 갈등과 우리나라의 선택’ 또한 흥미로웠다. 며칠 전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이 유력한 것으로 봐서 향후 미·중 정세의 변화도 외대학보에서 다뤄 주길 기대한다.

저출산 현상의 연장선으로 생긴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대학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단 것을 알게 됐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은 우리학교도 피해 가지 못할 것 같다. 낙태죄 개정안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임신 중지 찬반 토론에서 한 번씩 다뤄본 주제로 모두가 고민해 봤을 것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고민해 봤던 임신 중지 찬반 토론의 쟁점들은 낙태죄 개정안의 화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골머리를 앓는 사안이라 갈등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호를 통해 우리학교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찰떡해지는 공기 속 뜨거운 총학 농성으로 대학가 청춘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이런 쟁점을 잘 다뤄준 외대학보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태국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외대학보의 따뜻하고도 냉철한 시선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믿으며 글을 마친다.

1049호 학보를 읽고

코로나19와 가을 사이

조혜연 (인문·사학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어느덧 이번 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바람결에 차가움이 묻어나는 걸 보면 이번 해도 벌써 다음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365일이란 매해 같은 길이의 시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진다. 코로나19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 중 하나는 소통이다. 외대학보에서도 소통을 중요하게 다뤘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대면 소통을 하며 깨달았다. 새로운 일상에서 겪은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소통이 얼마나 필요인지 알게 됐다.

외대학보에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위기와 ‘Switch 1 On’ (이하 스위치 온) 시행 공지 후 발생한 우리학교와 우리학교 앙캠퍼스 총학생회의 갈등을 다루며 소통의 부재를 꼬집었다. 재정난과 코로나19 등 우리학교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것은 학생이지만,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 해결만 하려 했던 학교의 대처가 아쉬웠다. 스위치 온 제도를 다룬 기사의 이야기가 할 방향에서 이를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봤다면 독자가 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언제 종식할지 모를 코로나19기에 생협의 생존과 앞으로의 강의 질을 위해 하루빨리 학교와 학생 모두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차지한 일상 속에서 제자리를 찾으려 노력했던 글로벌캠퍼스의 온라인 행사만큼은 색다른 도전과 의미 있는 결과로 큰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 진행으로 △다시 보기△자세한 무대 관람△제한 없는 관람자 수 등이 가능했다. 오프라인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한걸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다. 새로운 방식의 소통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줬다. 여러 학생의 소감을 통해 축제의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찾기까지 많은 학생의 수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감사와 자랑스러움을 표한다.

낙태죄 개정안 논란을 다룬 기사엔 여성과 소통이 절실한 국가의 모습이 짙게 그려졌다. △의료계△정부△종교 단체가 각각의 이익을 우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만 고수했다. 정작 문제의 중심에선 여성은 배제된 낙태죄 개정안의 현실을 보여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문화된 이틀뿐인 법은 필요 없다. 많은 사람이 낙태죄 존치가 임신 중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 납득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을 결과로 내주길 바란다.

언제나 우리학교의 여러 소식과 독자사이의 소통을 책임지는 외대학보의 모든 기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음 해를 맞이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국·부장 고정칼럼

끝내기 전에

이제 찬 기운에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굵어지고 정적으로 변해 가도 아직은 잠들 때가 아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선 마지막까 지 긴장을 놓쳐선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호를 준비했다. 학기와 교내 학생자치단체의 임기가 끝을 바라보고 선 지금, 조 명이 필요한 곳을 훑어봤다.

먼저 그 시작은 이번 해부터 의무 사항이 된 폭력예방교육이다. 교내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성은 제기된 지 오래다. 그 일환이라 볼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의무화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의 시선이 있다. 특히 이번 해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인 온라인 성범죄가 등장했다. 대면하지 않아도 교내 성범죄 관련 논란은 계속됐다. 이는 물리적 형태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교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이다. 이번 폭력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어떤 교육이 도입돼야 할지 모두가 고민해 볼 기회다.

우리학교 구성원의 정보격차와 청년 노동 문제는 잔잔하게 항상 맴돌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민했다. 정보격차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누군가 체감하고 있는 일이다. 이

로 인한 권리 제한과 선택 박탈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열정페이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 끊임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양캠퍼스 총학생회 공약 이행 기사는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다.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공약을 지킬 힘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학생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지켜보는 이는 그들의 남은 행보에 긴장을 더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흐지부지한 끝을 방지하며, 다음 해 학생자치사회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학생자치가 죽어가는 시대다. 예전 어떤 때처럼 학생 사회가 절실하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여전히 그 짐을 잊지 않고 지켜한다. 필요한 뭉을 해내는 이가 있기에 모두가 간절히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기에 존재감이 두드러지진 않아도 공석이 되면 허전할 구석이다. 그래서 외대학보는 모든 구석이 아쉽지 않게 놓치지 않고 온기를 전하려 한다.

겨울잠을 잘 자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영원히 못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자고 나면 싱그러운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봄이 오길 바란다. 그때를 기다리며 성실히 겨울잠을 준비해본다.

허지나 편집장 99_jina@hufs.ac.kr

심자말풀이

①		①										
						②		②				
③												
③												
								⑤				
		④										
						⑤						

가로

1. 우리학교 뉴누스 엠레 ○○○○, 한국천문연구원 교천문센터와 MOU 체결해 (2면 참조)
2. 학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면 참조)
3. ○○○○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경제·사회적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5면 참조)
4. 바이든은 다음 달 14일 ○○○○ 투표를 거친 뒤 다음 해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8면 참조)
5. 내 좌우명은 '○○○○ 후회하지' 다 (10면 참조)

세로

1. 이문일공필 ○○○○ 2호점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에 개점한다 (1면 참조)
2. 이 건물은 최초엔 ○○○○ 건물 용도로 설계됐던 후문도 전해진다 (6면 참조)
3. 청년에게 ○○○○와 같은 노동력 출대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7면 참조)
4. 소수 최상류층을 향한 ○○○○ 세금 징수가 가능해지조 (9면 참조)
5. 인간은 이성과 본능 사이 가치 판단을 할 ○○○○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10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 102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20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배움터 3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2. **모집기간** : 2020. 11. 18(수) ~ 11.29(일) 까지
3. **지원방법**
 - 1) 외대학보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에서 지원링크에 접속한다.
 - 2) 지원서를 작성·제출한다
 - 3)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

4. **입사시절일정**
 - 1) 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로 '면접고사 및 면접' 장소와 시간을 개별 공지함
 - 2)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1) 3학기동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바람 (외대학보사 임기는 방중 수습기간 제외 총 3학기)
 - 2) 방학 기간 중 매주 주말을 제외, 수습기자 교육일정을 진행하니 참가 가능한 학생만 지원 바람
 - 3) 합격자는 방중교육동안 수습기자를 거쳐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정기자로 활동하게 됨

6. **문의사항 연락처**
(99_jina@hufs.ac.kr), 서울배움터 기자실: 02) 2173-2504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사설

바이든 시대에 달라지는 것들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아직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직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현직 대통령의 몽니 정도로 파악하는 분위기이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여곡절을 거친 후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가와 방송인으로 이름을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행보로 인해 미국 행정부 전체의 정책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비록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트럼프-김정은의 회동이 성사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하향식(top-down)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써의 경력이 전무한데 반해, 바이든 당선인은 36년의 연방 상원의원과 8년의 부통령직을 경험한 베테랑 정치인이며, 외교전문가이다. 상원의원 시절에는 외교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상원 내 요직을 거쳤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 바이든 당선인을 러닝 메이트로 지목한 이유는 외교분야의 경험과 역량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구해온 국정방향의 차이가 더해진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주요 국제현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국정철학의 방향을 잠시 살펴보자. 대통령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업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무역협정으로 이 협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를 강화하고 국제무역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통상, 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다자주의체제에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고, '미국-상대국' 방식의 양자주의 또는 일방주의적 대화방식을 선호했다.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틀이 되어 온 세계무역기구(WTO)가 편향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파리기후협약에서는 아예 탈퇴를 결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조치를 가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은 양측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는 미국 경제는 장기 호황추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주가지수도 최고수준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는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지난 11월 6일의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정부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코로나19, 경제, 기후변화,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염을 억제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며, 경제회복과 인종차별 문제 해결과 같은 국내이슈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 이슈를 새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대선 직후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의 대통령 취임 첫 날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다자주의 체제를 복원하고, 이 체제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분야에서는 WTO 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TPP에도 재가입 여부를 저울질 할 것이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미국-유럽 안보 관계를 복원하고, 이란 핵문제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공조 하에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의 국정방향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국제정세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2008년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할 상황이다. 중국은 신흥국의 지위를 벗어나 이미 G2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환경문제는 그 전보다 더 심각하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유럽은 브렉시트를 비롯하여 여러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선거공약만 보고 단정적으로 예견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을 거래의 상대로 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회로 작용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당분간은 국내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 통상,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9_jina@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허지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카리스마 속 부드러운 매력 박성웅 배우를 만나다

영화 '신세계'에서 “죽기 딱 좋은 날씨네”란 대사가 등장하자 관객은 열광했다. 그 열광의 주인공은 박성웅 배우(법·법 96)(이하 박 배우)다. 박 배우는 △멜로△액션△코미디 등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4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한 다작 배우다. 지난해엔 제27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영화 '내안의 그놈'으로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박 배우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버지 권유였습니다. 집안에 △변호사△의사△판·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다른 대학에 다니다 다시 수능을 봤습니다. 이후 우리학교 법학과 96학번으로 진학했어요. 군대를 갔다 온 뒤라 다른 입학생보다 늦은 나이였죠.

Q1-1. 대학생 시절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나요?

친구들과 야구 동아리 ‘뽀파스(Batters)’를 만들어 야구 시합을 다녔던 게 가장 인상 깊습니다. 당시 일본어과와 법학과 연합 동아리예요. 1학년부터 배우의 꿈을 가져 수업엔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동아리 활동과 대학로에서 연극활동을 했습니다.

Q2. 어떻게 배우로 진로를 구체화하게 됐나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공부를 하던 중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 관련 직업을 가졌을 때 행복할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시험공부를 뒤로하고 고민하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결론을 내렸죠. 물론 주변 법조인분들은 그 직업을 사랑하지만, 전 그 직업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생각했더니 연기란 답이 나왔습니다. 네 개의 수업에서 F학점을 받은 대가로 꿈을 찾았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맨땅에 헤딩하듯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려 노력했어요.

Q2-1. 법학과 졸업사진에 △금발△선글라스△흰색 정장 차림이었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당시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중이라 금발로 졸업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첫 염색이었죠. 금발에 검은 정장을 입으니 어울리지 않아 흰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차피 졸업사진은 몇 명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선글라스는 사진기사님이 써도 된다고 해서 썼습니다. 한껏 멋을 낸 사진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Q3. 1998년,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후 액션스쿨에 1기로 들어갔습니다. 액션스쿨은 강도 높은 훈련량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경험 이 배우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액션 연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나라 남자 배우는 액션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영화 ‘무뢰한’ △영화 ‘황제를 위하여’ 등에서 액션 연기를 직접 했어요.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할 수 있던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지만 영광의 상처로 생각해요. 후배 배우들도 성별과 관계없이 액션 연기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Q4. 데뷔 후 4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해 ‘다작 배우’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다작하는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연기는 다해보겠다 마음가짐입니다. 무명이던 10년간 기회가 없어 마음껏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하고 싶어요. 한 해에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 4개의 작품에 동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살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뮤지컬 ‘보디가드’는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이라 더 행복했죠.



▲인터뷰 중인 박성웅 배우의 모습

Q4-1. 연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연기력이라 생각합니다. 작품 내 인물을 어떻게 구현해야 관객분들께 입체적으로 보일지 고민하며 연기해요.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의 경우 ‘강동철’이란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대본에

쓰여있는 정보 외에 상상한 인물 정보를 덧붙여 연기하기도 했어요. 어떤 배우는 자신의 특징을 살려 배역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전 배역 자체에 녹아 연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배우가 됐죠.

Q4-2. △액션△멜로△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는데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영화 ‘테이큰’처럼 액션이 주가 되는 장르나 중년 멜로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기에 앞으로 도전할 장르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Q5. 영화 ‘신세계’의 악역 ‘이중구’ 연기가 인상적이라 대중은 ‘박성웅’하면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배우로서 하나의 이미지만 주목받는단 것에 속상하진 않은가요?

속상하진 않아요. 관객이 제게 관심이 있단 증거니까요. 이중구란 캐릭터가 그만큼 인상 깊었던 거겠죠. ‘무슨 행동을 해도 무섭다’고 말씀하셔도 농담인 걸 아니까

우가 없다 보니 어떻게 무명 시절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이 힘들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연기로 한 해에 50만 원을 벌었을 때도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생활을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때의 피와땀이 지금의 박성웅을 만든 거니까요.

Q7. 현재 출연한 영화 ‘대무가:한과 흥’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가요?

영화 ‘대무가:한과 흥’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오픈 시네마’ 초청을 받은 작품입니다. 무당이란 흔치 않은 소재로 관객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다음 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설강화’ 촬영에 들어갑니다. 다음 해 초엔 영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연기를 할 것 같아요.

Q8. 배우 박성웅이 아닌 ‘사람’ 박성웅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선 친구 같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바깥에선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내 똬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려 노력하고 있어요. 매니저에게 잘 대하고 있는지도 고민합니다. 매니저를 수직관계가 아닌 동료로 대하는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해요. 주위 사람과 오래 공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어요. 겁나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무명 시절엔 끝없는 터널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달리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 편한 일만 찾으면 오히려 편안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만 인생에 만족하며 살 수 있죠.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만하다면 무슨 재미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화 ‘신세계’ 외에 많은 활동을 했으니 다른 작품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해요.

Q6. 10년이란 짧지 않은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의 길을 놓지 않았는데, 배우란 어떤 의미인가요?

배우는 제 삶 자체입니다. 운명이나 행복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무명 시절엔 힘든지 잘 몰랐어요. 주변에 배